금호, 타이어사업 합작투자 전환!

군인공제회 50%에 투자자 20% 합작 전환 … 금호산업도 30% 보유

금호그룹이 최대현안이던 금호타이어를 군인공제회 및 국내·외 투자자와 신설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매각함으로써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금호그룹은 재무구조 개선 및 유동성 확보 등을 통한 기업체질 강화를 통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금호그룹은 4월18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군인공제회 회관에서 신훈 금호산업 대표이사와 김승광 군인공제회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건부 매각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매각가격은 1조4278억원이다.

신설 합작법인은 자본금 5000억원으로 지분은 군인공제회 50%,, 금호산업 30%,, 국내·외 투자자 20% 등으로 구성되고 타이어사업부 국내부문은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해외 6개 법인은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신설법인에 넘긴다. 계약은 군인공제회 운영위원회와 금호산업의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신설법인의 채권자 컨소시엄은 산업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해 6500억원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신설법인에 지원할 계획이며, 금호산업은 5월말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주주승인을 얻어 6월말까지 신설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금호그룹은 타이어부문 매각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금호산업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 회사 부채비율을 2002년 말 390%대에서 6월말까지 130%대로 낮출 계획이다. 그룹 부채비율도 2002년 말 350%대에서 2003년 말까지 200% 미만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호산업은 기존 3개 사업부문에서 건설, 고속 등 2개 사업부문으로 조정·운영되며 개선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건설은 공공·토목부문의 사업비중을 확대하고 수익성 위주의 주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고속부문은 신규노선 및 신상품 개발 등 신규사업 진출을 통해 사업구조를 다각화할 방침이다.

1960년 설립된 금호산업 타이어사업부는 전세계 160개국에 타이어를 수출하고 있는 세계 10위의 타이어 제조기업으로 2002년 말 기준 총직원수 5200명, 매출액 1조4373억원이다.

금호산업과 군인공제회는 금호타이어 임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에도 합의했는데, 특히 근로조건, 노동조합, 단체협약 등 종업원에 대한 근로조건도 그대로 승계키로 했다.

신설법인의 이사회는 상근이사 2명, 비상근이사 5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고 이사는 주주협의를 통해 임명할 계획이다.

한편, 금호는 외환위기 이후 합병, 지분매각, 청산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1997년 33개에 달했던 계열사를 15개로 축소했다. 금호석유화학 카본블랙 사업부문, 금호타이어 중국 톈진공장, 아시아나공항 기내식부문에 이어 타이어부문 매각으로 그룹차원의 구조조정을 사실상 마무리짓게 됐다.

<Chemical Journal 2003/04/21>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